치 사

부처님께서서는 ‘칠보(七寶)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복보다 사구계(四句偈) 만이라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전해 준다면 훨씬 더 뛰어난 복이다’라 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에만 묻어왔던 삶의 고통을 신심(信心)으로 이겨내고 자신의 신행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감동으로 전하는 이 자리는 어떠한 보석보다 뛰어난 보시라고 여겨집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구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불자의 신행수기 내용으로 올해 대상을 수상한 작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교사로서의 무한한 책임과 걱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묻어나 있습니다. 문제만 피우던 날선 눈빛의 아이들이 부처님 앞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는 긍정의 모습은 분명 교사로서 지혜가 열리고 감동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피와 자비로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치유하고 교육 일선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정진의 모습은 단단하고 곧은 신심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신행수기 공모는 모두에게 곧고 바른 신심이 곧 공덕의 어머니임을 증명해 준 법석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길어 올린 신행과 단단한 신심이야말로 청정하고 맑은 도량을 완성할 수 있고, 희망 가득한 한국불교를 구현해 낼 수 있는 마중물과 다름이 없어 진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선선한 바람, 그리고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빗줄기으로써 신록은 더욱 짙어지고 알차게 여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편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2

회 신행수기에도 지난해와 같이 300여명이 넘는 많은 불자들의 장한 신해행증(信解行證)이 하나하나 쌓였다는 소식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신행수기를 주관한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의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佛法)에 대한 믿음은 불자로서 지녀야 할 참된 덕목이자 가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부처님을 향한 불자(佛子)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회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행수기가 해를 거듭하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신행의 전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행수기 공모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할 것이며, 아름답고 지극한 신행수기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고 일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법기(法器)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심과 발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실천의 한 조각 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마음가짐은, 공히 오늘 감동의 수상으로 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불자님 모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수상의 인연이 일상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바라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6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